

대구주보

사순 제1주일

2020. 03. 01. (가해) 제2203호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 4,10)



『광야의 그리스도』 이반 크람스코이, 1872년, 러시아 모스크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들꽃마을 원장 | 전광진 엘마노 신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첫째,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하느님인가? 세상인가?’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첫 번째 일 것입니다. 굶주림만큼 비극적인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물질에 집착해서 하느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물음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자기와 친한 분이고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하느님을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악마에게 절하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사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뛰어난 지도자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유혹이란 ‘하느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

는 욕구’를 말합니다. 하느님을 잊고 물질만으로 살려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악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툰 방법입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끄니다. 또한 유혹에는 내 생각이 옳고 그렇게 해야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확신으로 포장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심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포장 속에 숨은 영웅심리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로 물든 인간성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성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선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또 인간 마음 안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늘 시끄럽고 복잡하고 인생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길에 유혹은 늘 우리 주변을 어른 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마태 4,10) **궤문**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2코린 5,20)

올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신비를 경축하고자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신비는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주축을 이룹니다.

1. 회개의 근본인 파스카 신비

이번 2020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저는, 젊은이들에게 보낸 저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의 한 구절을 모든 그리스도인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활짝 벌리신 두 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려 할 때에,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피로 깨끗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23항) 예수님의 파스카는 이미 지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파스카는 성령의 권능으로 언제나 현재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해 줍니다.

2. 회개의 시급성

참으로 하느님 자비의 체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쳐”(갈라 2,20)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벗끼리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시기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호세 2,16 참조)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이 더욱 기꺼이 되올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3. 당신 자녀들과의 대화를 열렬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 교회와 세상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네 삶속에는 이따금 비극적으로 악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와 구원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강한 뜻을 드러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2코린 5,21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4.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부(富) 파스카 신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 안에 아로새겨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하여 우리도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선의의 사람들에게 희사(喜捨)를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가장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사는 더 공정한 세상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 개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사순 시기를 거행하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어 하느님과 화해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파스카 신비에 고정시키며, 회개하여 하느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황, '코로나19' 피해자 위해 기도

2020년 2월 12일 바티칸 뉴스 | 번역 김단희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중국 국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2일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수요일 일반 알현을 통해 “잔혹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중국의 상황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되길 기도합니다.”



중국에 온정의 손길 ... 교황청, 의료용 마스크 지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현재 전세계 20여 개 국으로 확산됐으며, 중국 전체 누적 사망자는 1,100명, 확진 환자는 4만 4,000명에 이른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한글 명칭 '코로나19')로 정했다.

12일 수요일 중국 정부는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2,01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월 들어 최저치다.

중국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개학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에 따라 2월 말까지 개학이 연기된 곳도 있다.

교황은 지난 1월 26일 주일 삼중기도에서 코로나19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등 중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주 교황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60만 개를 지원했다.

교황청 공보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교황자선소와 이탈리아 내 중국교회선교센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중국에 마스크를 보냈으며 바티칸 약국이 협력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후베이성, 저장성, 푸젠성 등지로 보내졌다.



김화춘 야고보 (?~1816년)

김화춘 야고보(金若古排)는 충청도 청양의 수단이(현 충남 청양군 사양면 신왕리)에서 태어나 보령의 청라동(현 충남 보령군 청라면 청라리)으로 이주해 살았다. 1839년 전주에서 순교한 김대권 베드로는 그의 형이다.

본성이 온순하고 참을성이 있던 야고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과 함께 아버지에게서 교리를 배웠다. 그리고 장성한 뒤에는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큰 힘을 보태었다.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켰으며, 언제나 기도 생활과 성서 읽기에 부지런하여 교우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는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상도 청송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1815년 을해박해가 일어나 경주 포졸들이 청송 일대의 신자들을 수색하고 다닐 때, 야고보도 그들과 함께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관장이 제시한 온갖 유혹을 거절하고, 혹독한 형벌을 신앙으로 극복하였다. 그런 다음 고성대 베드로 형제, 구성열 바르바라 등과 함께 대구로 압송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대구에서 여러 달을 갇혀 지내는 동안 김화춘 야고보는 여러 차례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켰으며, 감사도 마침내 그의 신앙에 굴복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이때 그에게 내려진 선고문은 다음과 같다.

“김 야고보는 아버지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워 대대로 죄악을 저질러왔다. 모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로(천주교 교리를) 귀로 전해 듣고 입으로 외우면서 그 사악한 말을 깊이 믿었다. 여러 차례 형벌과 문초를 당하면서도 죽기를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으니, 그 요사하고 사악함이 아주 지극하다.”

야고보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임금의 윤허가 내려와 동료들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이었다. 순교 후 그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그 유해가 거두어져 적당한 곳에 안장되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신앙생활 안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심각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전례가 없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1.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대신 가톨릭평화방송 TV미사를 시청하시거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매일미사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 ▶ TV 매일미사 : 월 ~ 토 06:00, 12:00, 21:20
 주일 06:00, 12:00, 18:00, 21:00
- ▶ 라디오 매일미사 : 월 ~ 토 05:00 주일 05:00, 19:00

2. 주일미사참례 의무는 관면하는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송 미사를 시청하시거나 대송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대송은 그 주일의 복음말씀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시거나 다른 기도를 바칠 수 있으며, 선행 및 나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 TV(매일 05:20)와 라디오(평일 14:00, 16:05 프로그램 내), 교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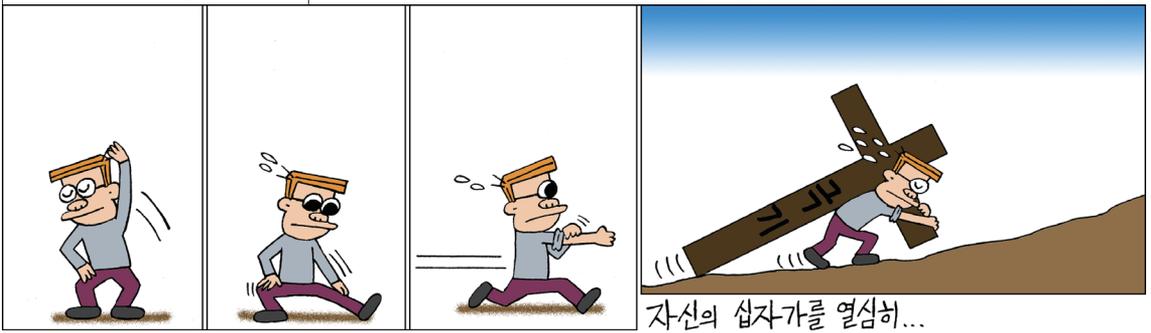
3. 질병 확산의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성당을 비롯한 공공장소의 출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 단체의 모임과 행사활동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수시로 바치시고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고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정성된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5. 대구주보는 정상적으로 매주 발행되고 있으며 교구 홈페이지 또는 대구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창세 2,7-9; 3,1-7	제 2 독 서	로마 5,12-19	복 음	마태 4,1-11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 성 체 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3월 2일(월) ~ 3월 7일(토) 06:50, 16:50 김현준(베네딕토) 신부

성소 | 피정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피정

일시: 3.21(토) 15:00~22(일) 14:00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교육 | 모집

앞산밀북카페 개강 연기

3월 초로 예정된 앞산밀북카페의 모든 강의가 4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문의: 622-1900

한국SOS어린이마을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영문 자료 번역
 문의: 984-6928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서류: 교적증명서

문의: (010)3516-1911 / (010)3529-3898

안동 농은수련원 초등부 여름캠프

일시: 7.24(금)~8.5(수) 2박 3일, 총 4차
 대상: 초등3~6학년 / 참가비: 9만원
 문의: (054)652-0591 / (010)2785-0591
<http://www.nongeon.kr>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상시접수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채용 | 안내

침산성당 사무직원 채용

자격: PC가능, 초대졸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마감: 공고 후 채용시
 접수: j3234@hanmail.net
 문의: (010)2076-1178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법률 상담, 심리 검사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논공)성요셉요양병원장례식장 053-617-3644

☎ 053-650-4444 / 053-657-4444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로 수익금은 전액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 노인 복지주택 /

어르신들을 모신다

성모님 사랑 안 - 인력한 노후생활을 -

☎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천로 1448-16

기백한의원

허리, 어깨, 손발저림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신인병의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053)670-6000

레이저 백내장 노인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옵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대천사 라파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Oratio Imperata” (2020년 1월 29일, 필리핀 주교회의)

PRAYER FOR PROTECTION against the spread of N-CORONAVIRUS 번역

성지와 함께 꿈과 희망을...

 **(주)성지여행**

T. (053)253-3399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사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백 합 식 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장(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616) 척탑병원 3층
청라연덕(산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2-2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컴퓨터 & 모바일 전자제품

컴퓨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제품, 공유기, 블루투스
스피커, 핸드폰 관련, 각종 케이블

우 성 네 트 워 크

전명환(아브라함) 053-604-3171
대구시 북구 유용단지 전자점 2층 71호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창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